

# 인문지리학 세미나

인문지리학 석사과정

김지수

## Tim Cresswell

- Professor of Geography at the University of Edinburgh(2019~).
- 주요 관심사로 사회적, 문화적 위계와 관련된 장소와 **이동성의 지리학**.
- GeoHumanities(지리인문학).

## 목차

|                      |    |
|----------------------|----|
| I. 서론 -----          | 2  |
| II. 초기지리학 -----      | 3  |
| 1. 고전지리학 이론          |    |
| 2. 최초의 지리학자          |    |
| 3. 중세지리학             |    |
| 4. 근대지리학을 향하여        |    |
| III. 근대지리학의 출현 ----- | 10 |
| 1. 알렉산더 폰 훔볼트와 카를리터  |    |
| 2. 다윈, 라마르크 진화론      |    |
| 3. 지정학과 지형학          |    |
| 4. 환경결정론             |    |
| 5. 무정부주의적 대안         |    |
| IV. 결론 -----         | 19 |

## I. 서론

지리학은 우리의 평범한 일상과 크게 밀착되어 있다. 또한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지리적 질문에 맞닥뜨린다. 단순히 길을 묻고, 지역의 특산품을 묻는 것도 지리적 질문이다. 이렇게 우리의 일상과 가까이 있는 지리는 사람들에게 가벼운 학문 정도로 생각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지리학은 사실 심오한 학문이다. 문화지리학자 데니스 코스그로브(Denis Cosgrove)는 지리적 질문의 일상성 때문에 가벼운 것이 아니라 심오한 것이라고 그의 에세이<sup>1)</sup>에서 주장한다. 그의 에세이에 따르면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상가조차도 여러가지 지리적 **궁금점**(지대가 높은 곳에 입점할 수 있던 까닭, 도시의 형태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등)을 제시해주기도 하고 상가를 이용하는 소비자뿐 아니라 다른 행인(전단지를 나눠주는 종교인, 거리를 활보하는 청소년 무리 등)의 구별되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어 편협하고 제한적인 관점을 넘어서고 있다'고 한다. 여기서 생기는 지리적 궁금점들은 절대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상가가 지대가 높은 곳에 입점하게 된 이유를 찾는 것은 이론적인 이해와 분석이 동반되어야 가능하다.

이처럼 지리적 연구는 이론과 철학에 의해 형성되기 때문에 지리 이론을 배워두는 것은 중요하다. 여기서 팀 크레스웰은 지리 이론을 배우는 방법으로 지리학사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을 제시한다. 지리학이 발전했던 학문적 역사를 배우는 것이 어려워 대부분의 학생들이 힘들어하지만 인간 의식의 발전과 더불어 지리 이론의 발전을 이해하는 것은 지나온 학자들이 깊이 숙고하고 논쟁해왔던 핵심적 사고를 이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방법일 것 같다고 제시한다. 이에 따라 다음 장에서부터는 초기 지리학 이론의 발전에 대해 설명을 하고자 한다.

---

<sup>1)</sup> Cosgrove, D. E. 『Geography is everywhere: Culture and symbolism in human landscapes, in Horizon in Human Geography(eds D.Gregory and R. Walford)』, Barnes and Noble, Totowa, NJ, 1989, (118~119P).

## II. 초기지리학

### 1. 고전 지리학 이론

현재까지 알려진 지리학 문헌 중 가장 오래된 저술들은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와 역사학자에 의해 집필되었다. 그들은 당시에 알고 있던 장소를 장소학적으로 (topographically, 현재는 지형학에 더 가까운 의미로 쓰인다고 생각됨) 세밀하게 기술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기후나 토양의 비옥도와 같은 자연 조건에 대한 내용뿐 아니라 문화와 생활양식에 관한 내용을 포함했는데 할리카르나소스 (Halicarnassus)의 헤로도토스<sup>2</sup>(Herodotus, 485~425 BC)는 이집트의 방대한 지역을 답사하고 지방의 자연환경, 주민들의 풍습까지 나타낸 기록<sup>3</sup>을 남겼다고 한다.

헤로도토스는 기원전 490~479년 사이에 벌어진 페르시아 전쟁사를 9권에 걸쳐 집필한 역사학자다. 그는 전쟁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당시에 알고 있던 여러 세계를 자세히 설명하려했는데 위의 이집트 예시도 9권 중 제 2권에 포함된 내용이다. 이집트를 파악할 수 있는 식생과 동물, 하천의 흐름, 주민의 습관 등 상세한 내용이 제 4권까지 기록되어 있어 독자들은 전쟁사 중 절반을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어떻게 막강한 제국으로 부상했는지를 지리적, 지정학적 측면의 설명으로 확인할 수 있게된다. 특히 이 부분에서 페르시아가 어떠한 “자연” 조건 하에서 성장하게 되었는지가 핵심이었는데, 페르시아는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나일강이 접해있는 비옥한 지리적 위치에서 자연스럽게 번영했고 그로 인해 영토의 팽창이 일어났다는 주장을 한다. 다시 말하자면 페르시아가 막강한 제국이되어 영토를 확장하게 된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즉 자연이(또는 환경이) 결정해준 것이다라고 헤로도토스는 주장한다. 이를 환경결정론(environmental determinism)이라 하는 지리 이론의 일부인데 헤로도토스 사후에 만들어진 개념이다.

헤로도토스가 자신의 여행기를 세밀하게 기술하면서 자연과 인간 세계에 대한 이론을 펼쳐냈다면, 어떤 사람들은 체계적으로 지리학을 정립하려했다. 알렉산드리아의 도서관장이었던 에라토스테네스(Eratosthenes, 276~194 BC)는 지구의 둘레를 처음으로 계산하려했고 오늘날 위성항법장치(GPS)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경·위도 좌표 체계를 창안했다. 지구의 둘레를 추정하는 방식은 관찰과 이론의 합작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방식은 불과 수백 년 전까지도 계속 활용이 됐었고, 실제로 현재

---

<sup>2</sup>) 헤로도토스: 고대 그리스의 역사가로 서양 문화에서는 “역사학의 아버지”로 불린다. 역사뿐 아니라 여러 지역을 널리 여행하며 접한 이야기 자료를 기록하고 다녀 자연과 인간 세계에 관한 이론을 펼쳤다. (Wiki, 2025.05.10, <https://en.wikipedia.org/wiki/Herodotus>).

<sup>3</sup>) Herodotus (2007 [450 BC]) An Account of Egypt, Wikisource, The Free Library, [http://en.wikisource.org/w/index.php?title=An\\_Account\\_of\\_Egypt&oldid=370023](http://en.wikisource.org/w/index.php?title=An_Account_of_Egypt&oldid=370023) (accessed July 12, 2007).

의 추정 둘레와 약 16%정도의 오차 정도만 있을 정도로 근접한 수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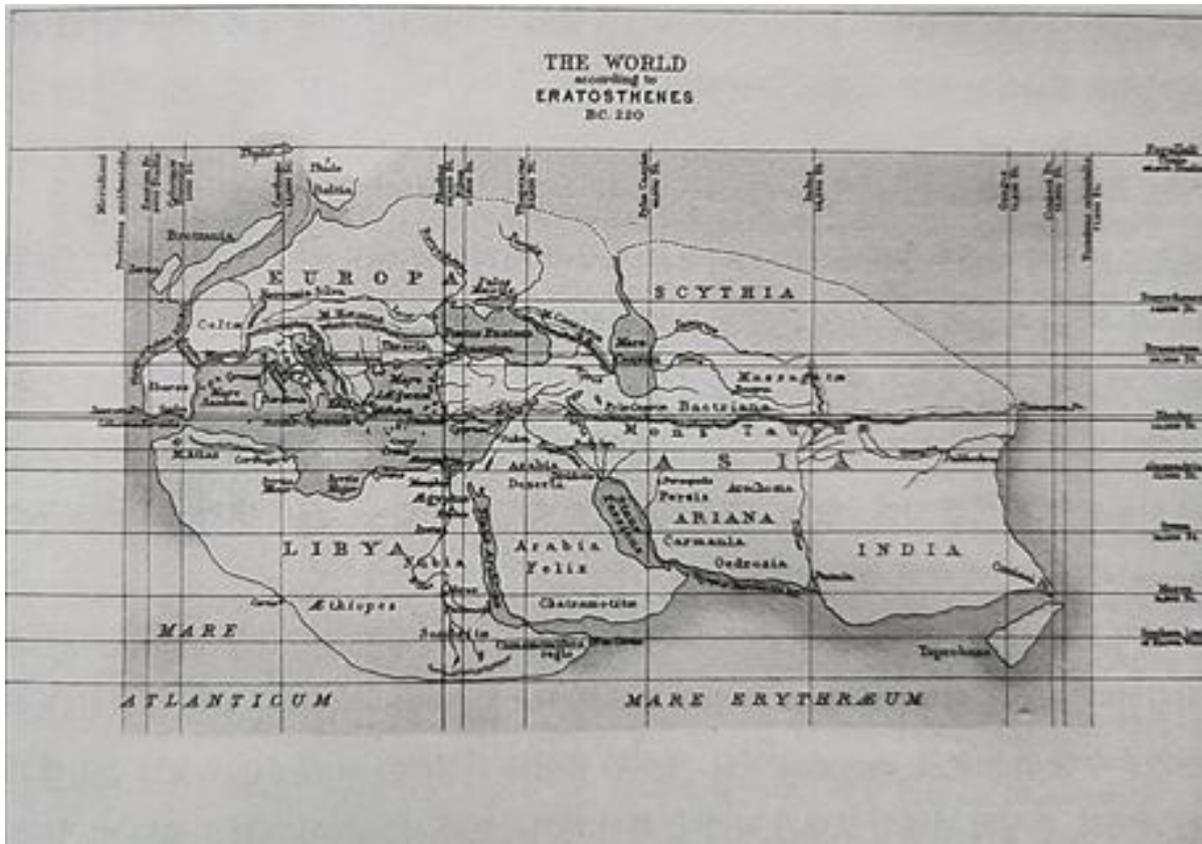


그림1) 에라스토스테네스가 추정한 세계 지도<sup>4)</sup>

두 명의 지리학은 오늘날 지리 이론이 작동하는 두 가지 핵심적인 방식을 예시하고 있다. 헤로도토스는 여행한 지역의 정보를 정리하고 독창적인 모습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탐구했고 에라토스테네스는 세계를 측정하는 방법과 지구 전체를 하나의 통일적인 좌표 체계로 묶을 수 있는 방식을 도출하는 데 관심을 두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의 특수성에 대해서는 관심이 크지 않았지만 두 인물은 각자 질서정연한 관점을 통해 세계를 이해하고자 했고, 자기가 살던 곳의 한계를 넘어 전체 세계에 관심을 두었다는 측면에서 공통점을 띤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이런 세계를 “인간 거주 세계(*inhabited earth*)”를 의미하는 용어로서 오이쿠메네(*oikoumene*) 나중에는 에쿠메네(*ecumene*)라고 불렀다. 오늘날 지리학자들이 관심을 두는 세계 역시 에쿠메네이다.

## 2. 최초의 지리학자

과거부터 지리학 이론가라 불린 사람들은 있었지만, 서양의 경우 지리학 기록을

<sup>4)</sup> George Franklin Cram, 『sCram's Universal Atlas: Geographical, Astronomical and Historical』(1895), 239p.

최초로 남긴 사람은 아마시아(Asia)에 살았던 스트라본(Strabo, 64 BC~ AD 23)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사실이다. 스트라본은 고대 그리스와 로마시대 사람들이 생각했던 "오이쿠메네"를 설명하기 위해 17권으로 구성된 『지리학(Geography)』을 집필하였는데, 그 안에는 수리적인 내용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어 후세 사람들은 그를 공간 지리학자(geographer of space)라고 부르기도 했다. 이러한 부분은 에라토스테네스와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와 동시에 스트라본은 장소에 대한 지리학자로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에 관심을 두었다. 그가 저술한 『지리학』 제 6장<sup>5)</sup>에는 이탈리아의 지역과 장소에 대해 백과사전식으로 상세히 기술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문화지리학적인 헤로도토스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팀 크레스웰은 스트라본의 문화지리는 공간 지리학적 이해를 돕기 위한 지역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방법 중 하나였다고 평가한다.

많은 사람들은 스트라본을 공간 지리와 국가의 공모 관계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해석하곤 했다. 스트라본은 인간 거주 세계에 관심을 가지고 아우구스투스 치하의 로마제국에서 지리학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 당시 연구가 부족했던 대륙과 해양 간의 변화에 몰두하고 파랑 작용과 침식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sup>6)</sup> 이런 경향 때문에 클라우디오스 프톨레마이오스(AD 90~168)와 자주 대비되곤 했다.

프톨레마이오스는 로마 시민이 되기 이전 이집트에서 태어났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도 마찬가지로 총 8권의 『지리학(Geographia)』을 집필하였는데 장소에 대한 백과사전식 설명은 없고 지구의 크기, 경위도의 측정, 지도 투영법 등에 초점을 두었다. 우리가 자주 봤던 프톨레마이오스의 세계지도가 그 성과라고 할 수 있다. 프톨레마이오스는 투영법과 위치 체계를 사용해서 지도를 과학적으로 만드는 방법의 지침을 제시했는데, 이는 후대에 지도학의 근간이 되었다.

---

<sup>5)</sup> Strabo, 『The Geography』(1924), Harvard University Press, strab.

<https://www.perseus.tufts.edu/hopper/text?doc=Strab.+6.1.4&fromdoc=Perseus%3Atext%3A1999.01.0198>, 6.1.4p(제 6권 chapter1 section4).

<sup>6)</sup> Strabo 1912[AD 7~18]: 1.3.9.



그림2) 좌표체계를 갖춘 프톨레마이오스의 세계지도<sup>7)</sup>

헤로도토스, 에라토스테네스에서 시작해 프톨레마이오스까지 이어져 온 2,000년 동안의 지리학사에서 지리학의 핵심 질문이 무엇이었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고전 지리사상의 역사는 진보적인 성격을 띄지 않고 보수적인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중세 지리학 시대에서는 대부분 무시되거나 잊혀졌다. 다음 장에서 중세 지리학이 왜 고전 지리를 인정하지 않았는지, 무엇이 중세 지리에서 중요했는지를 확인해보겠다.

### 3. 중세지리학

중세는 교회 권력이 강해 고전 지식을 몰아내고 신 중심의 세계관이 부상했다. 이런 신 중심의 세계관은 중세의 지도인 마파문디(Mappa Mundi)에 잘 드러나 있다. 인간 중심의 거주 세계를 과학적으로 지도화하려는 시도는 사라지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편평한 원반과 같은 지도가 그려졌다.

<sup>7)</sup> Ptolemy Cosmographia 1467 - world map, 2025.2.10, ,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Ptolemy\\_Cosmographia\\_1467\\_-\\_world\\_map.jpg](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Ptolemy_Cosmographia_1467_-_world_map.jpg).



그림3) AD1300년경의 마파문디<sup>8)</sup>

중세 유럽에서는 지리학이 과학의 영역으로 분류돼 정체된 면이 있었다. 20세기 초 몇몇 지리학자들은 중세 지리학의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지금까지 중세 지리학은 무시되어 왔다. 역사 지리학자 키스 릴리(Keith Lilley)의 주장에 따르면 '지리학자들은 중세를 방치함으로써 중요한 연구 영역을 다른 학문에 넘겨줬고, 나아가 지리학이 근대 초기가 되어서야 시작된 학문이라는 생각을 퍼뜨리고 있다'고 한다.<sup>9)</sup> 또한 릴리의 논문에 대해 문화지리학자 베로니카 델라 도라(Veronica della Dora)는 '중세 지리학의 이해를 통해 지리학의 역사를 더욱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근대적인 시각과는 다른 새로운 렌즈를 통해 지구를 사유할 수 있다'고 말한다. 또한 그는 '중세 지리학은 단순히 지리학사에서 중요하지만 무시되어 온 부분

<sup>8)</sup> 1300년경 영국에서 제작된 헤리퍼드 마파 문디, 2020.06.16, [https://ko.wikipedia.org/wiki/%EB%A7%88%ED%8C%8C\\_%EB%AC%B8%EB%94%94#/media/%ED%8C%8C%EC%9D%BC:Hereford\\_Mappa\\_Mundi\\_1300.jpg](https://ko.wikipedia.org/wiki/%EB%A7%88%ED%8C%8C_%EB%AC%B8%EB%94%94#/media/%ED%8C%8C%EC%9D%BC:Hereford_Mappa_Mundi_1300.jpg).

<sup>9)</sup> Lilley, K. 『Geography's medieval history: a neglected enterprise. Dialogues in human Geography』, 2011, 147-162p.

이 아니라 고전과 근대를 연결해주는 새로운 지리적 매혹점이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sup>10</sup> 두 명의 지리학자의 주장처럼 중세 지리학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아니면 현재까지 대다수의 지리학자들이 경시했던 이유가 있었는지 중세시대의 학자들의 이론을 확인해보겠다.

독일의 알베르투스 마그누스([Albertus Magnus](#))는 고전의 지식을 살려 근대 초기까지 전파하려했던 인물 중 하나이다. 신학과 과학을 결합하려했고, 철학 속에 뿌리내리려했다. 그의 저술인 『장소의본질([De Natura Locorum](#))』에서는 '지표면 위에서의 인류의 삶은 점성학적인 힘과 국지적인 힘 둘 다의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한다. 그는 특정 장소에 미치는 우주적, 환경적 영향력에 초점을 두고 결합되어 독특한 환경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했다. 또한 그는 피부색과 같이 사람들 간의 가시적 차이 또한 환경의 영향력에 기인한 것이라 보았다. 사람의 특성은 자신이 태어난 곳과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믿었고 자신이 태어난 장소를 떠나 살게 되면 자신의 고유한 특성이 점차 약화된다고 했다. 어떻게 보면 그의 주장은 환경결정론과 밀접해 보인다. 그렇지만 전형적인 환경결정론과는 다르게 인간이 자유의지를 통해 환경을 변화시킴으로써 특정 장소를 거주에 더 유리하게 만들 수 있다고 봤다.

오늘날 모로코 탕헤르 출신의 이븐 바투타([Ibn Battutah](#), 1304~1368)는 28년에 걸쳐 당시에 알려져 있던 세계 대부분을 여행하면서 기록을 남겼다. 중세 시대 그리스인들은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는 너무 더워서 인간이 거주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의 기록으로 생각이 틀렸음이 입증되었다.

또 다른 무슬림 지리학자인 이븐 할둔([Ibn Khaldun](#), 1332~1406)은 집단의 응집력과 문명의 성쇠를 통찰력 있게 설명함으로써 사회과학의 아버지로 알려졌다. 특히 7권으로 구성되어 있는 『역사서설([Muqaddimah](#))』은 그의 핵심 저술로, 사회적 갈등은 역사의 전개 과정에서 핵심적이며 공간과 시간은 이런 전개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또한 사회적 응집력, 집단 결속력 등을 의미하는 아사비야([asabiyah](#))는 친족 또는 부족 네트워크를 통해 형성되며 종교적 믿음에 지탱되고, 사회·경제적 영역에서 나타나는 불가피한 갈등으로 인해 아사비야는 점차 소멸되고 또 다른 강력한 아사비야 집단이 나타나 사람들을 지배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패턴은 끊임없이 반복되며 역사는 이런 반복의 결과라고 한다.

중세 후기 이르러 유럽에서는 르네상스를 계기로 성경적이지 않은 지식이라 배척되었던 고전 지리학이 재발견되어 중심 무대로 등장할 수 있었다. 유럽에서는 배척되었지만 아랍에서 400년 이상 계승, 발전되어 왔던 고전 지식은 부흥 사업에 일환으로 많은 책들이 라틴어로 번역되어 유럽에 전파되었다. 15세기부터 16세기까지 이루어진 고전 지식의 재발견은 근대 지리학을 향한 밑거름이 되었다.

---

<sup>10)</sup> della Dora, V. 『Is geography the eye of (pre-modern) history? Looking back at and looking through medieval geographies. Dialogues in Human Geography』, 2011, 163-188p.

근대 지리학은 제국주의, 식민주의적 관념에 초점이 맞춰져있다. 특히 이탈리아 북부, 벨기에, 네덜란드 일대의 상업 자본주의 국가들이 부상하면서 세계 다른 편에 위치한 국가들과 교역하면서 부를 축적해갔다. 이는 자연스럽게 세계 여러 시장에 대한 착취를 야기시켰고, 그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지도학과 항해술의 발달로 이어졌다. 이는 부유층들의 모습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16~17세기 부유층들은 지도와 지구의를 귀중한 소장품으로 여겨 자신의 지식과 권력을 나타냈다.

근대 초기 유럽의 시대상에 맞춰, 지리학은 탐험과 지도학적 재현을 통해 구축한 세계에 대한 지식을 생산해내는 방향으로 발전했다. 독일의 지리학자인 바레니우스는 그에 발맞춰 탐험과 세계의 재현을 설명하기 위한 『일반지리학(Geographia Generalis)』(1650)을 집필했다. 바레니우스는 지리학이라는 과학에 대해 모든 것을 망라하여 설명하고자 했다. 그는 “일반지리학”을 **절대지리학, 상대지리학, 비교지리학** 3개 분야로 구분했다. **절대지리학**은 세계에 대한 수리적 사실로 지구의 크기, 태양과의 거리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있고 **상대지리학**은 지구의 운동이나 지구와 태양계 행성 간의 상호작용으로 지표면 위의 상이한 지역 간의 관계에 대한 내용을 서술했다(계절이나 낮의 길이가 다른 것에 대한 내용). **비교지리학**은 지표에 관한 연구나 특정 장소로 이동하는 방법에 관한 연구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내용을 확인해보면 느껴지듯이 바레니우스는 지리학이 보다 수학적이고 과학적이었으면 좋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우리가 아는 자연지리 혹은 지구과학의 개념과 유사하다고 생각한다.

바레니우스는 일반지리학을 저술하고 사망하기 전에 **특수지리학**에 대한 언급을 했다. **특수지리학**은 코라와 토포스<sup>11)</sup>에 각각 어원을 두고 있는 지역학(chorography, the regional)과 장소학(topography, the local)을 이해하기 위한 관찰에 토대를 두고 있다. 우리가 들었을 때 익숙한 “정치 체제”, “도시”, “풍습과 악습” 등의 인문지리 내용을 담고 있다.

---

11) 케논, 코라, 토포스

케논은 모든 사물이 존재하는 빈 공간으로, 동질적이고 무차별적인 영역을 지칭. 영원한 공허를 말함.

코라는 케논이라는 공허에서 어떤 형상을 갖추어 나가는 방식을 지칭. 보통 공간을 지칭하는데 케논과는 다르게 코라는 반드시 내부에 어떤 사물이 있어야함.

토포스는 생성 과정이 끝난 후 최종적으로 달성된 장소를 지칭.

아리스토텔레스는 코라를 국가를 기술할 때 사용했고 토포스를 국가 내의 특정 지역이나 장소를 가리킬 때 사용.

Tim cresswell, 『지리사상사』, 시그마프레스(2024), 32~33p

바레니우스의 지리학은 앞선 학자들의 성취를 반영하고 있다. 또한 자신이 영향 받은 환경이 반영되어 그의 저술은 탐험적이고 계산적이다. 제국주의적 성격을 띤 동인도회사에서 지도 제작을 했던 그는 자연스럽게 탐험, 무역, 항해 등의 사고방식에 익숙해져 지리학의 방향도 유사하게 나아갔던 것이다.

바레니우스의 이론을 보고 느낀 점이 있었다. 지리사상의 발전은 주관적이고 역사적 맥락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이다. 스트라본의 지리학은 로마 제국이 평온할 당시여서 제국 내부의 생활을 이해하고 인간이 사는 곳을 위주로 발전했다면 중세 시대 지리학은 유럽에서는 배척당했지만 그 당시 순교와 무역 등으로 지리적 지식이 중요했던 아랍권(이븐 할둔)에서는 융성해 계승되어왔다. 또한 근대에 가까워져 식민과 제국주의가 만연한 세상에서 산 바레니우스는 자연스럽게 탐험과 항해, 측량 쪽으로 발전하게 됐다. 이렇게 보면 앞에서 말한 델라 도라의 지리의 연속성 측면에서 중세의 지리학은 무시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고전과 근대를 연결해주는 연결점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 Ⅲ. 근대지리학의 출현

앞서 얘기한 바레니우스의 지리학은 몇 세기 동안 유럽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이론이었다. 그의 지리학이 성공을 거두고 대학에서도 지리학 강의를 시작되었지만, 지리학이 중세 이후 본격적으로 부활하게 된 것은 18세기 후반 독일이었다. 이 시기의 주요 인물로는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Immanuel Kant, 1724~1804)가 있었는데 그는 철학 분야에서 중요한 인물이기도 했지만 자연지리에 있어서도 중요했다.

칸트는 "실체(noumena)"와 "현상(phenomena)"를 구분했다. 실체는 인간의 정신 너머에 있는 세계인 외적 실재(reality)를 뜻하고, 현상은 우리가 지각을 통해서 이해하게 되는 세계의 표상(appearance)을 말한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사물을 지각함으로써 알 수는 있지만(현상), 그 사물의 순수한 모습(실재)는 알 수 없다'고 했다. 그의 사상에 따르면 현상은 우리가 세상을 지각하게 되는 토대가 되고, 그 중 가장 일차적인 것이 바로 공간과 시간이다.

칸트의 이론으로 인해 지리학은 역사학과 함께 중요성을 갖게 되었다. 지리학은 공간을 다루었고 역사학은 시간을 다루었다. 공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절대적 공간(absolute space)라는 개념이 지리학에서는 생기게 됐다. 절대적 공간은 어떤 행위에 주어진 장을 의미하는데, 모든 사건과 과정은 공간 내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그 위치는 일정한 좌표 체계에 따라 측정될 수 있다고 한다. 이는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을 공간적인 접근으로

다가갔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그렇지만 모두가 같은 생각을 했던 것은 아니다. 역사학에서는 공간을 우선으로 하는 이론에 반하기도 했고, 같은 지리 이론을 약화시키는 모습도 보이기도 했다.

다음 나올 지리학자는 칸트 사상 속에서 교육받은 지식인 계급이었던 사람이다. 칸트가 근대 지리학자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지리 이론이 어떻게 발전됐는지 확인해보겠다.

## 1. 알렉산더 폰 훔볼트와 카를리터

19세기 독일(정확히는 프로이센)에서는 지리학이 크게 번성했다. 그 중 유명한 지리학자 알렉산더 폰 훔볼트(Alexander von Humboldt, 1769~1859)와 카를 리터(Carl Ritter, 1779~1859)는 지리학의 근간을 이뤘다. 『코스모스(Kosmos)』와 『에르트쿤데(Erdkunde)』는 그들이 저술한 대표적인 책이다. 훔볼트는 자연과학(특히 지질학)을 기반으로 하였고, 리터는 보다 철학적이고 인문주의적 접근을 택했다.

훔볼트는 칸트 사상 속에서 교육을 받은 지식인 계급이자 여행가였다. 중부 유럽에서 광산 책임자로 일할 당시 직접적인 관찰과 측량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지구 표면 중 아주 미세한 부분들에 초점을 맞추면서 그것을 전 세계에 연결시켜 일관되게 설명하는 데 능했다. 특히 공간 상에서 같은 값을 지닌 점들을 선으로 연결하는 작업에 애착을 가졌다. 그 사례로 “등온선”이 있다. 훔볼트의 의도였는지는 모르지만 이 등온선 개념을 활용해 만든 등온선대역의 개념은 미국의 서부개척 시대 영토확장주의를 정당화한 이념인 “명백한 숙명(manifest destiny)”의 정당화하는 데에 활용되기도 했다.

자연지리의 훔볼트와는 대비되게 공상적이고 인문지리적이었던 카를 리터는 인간 세계와 자연계는 분리될 수 없다고 믿었다. 또한 지구의 모습이 신성(神性)의 증거라고 보고 신의 목적이 사물들의 질서로 표현된 것이라고 보았다. 이런 사고방식을 목적론(teleology)적이라고 하는데, 어떤 것을 미래에 다가올 무엇에 의해 설명하는 방식을 지칭한다. 일반적인 인과관계에 따르면 원인은 결과보다 먼저 일어나야 하는데 목적론적 설명은 어떤 사건은 그것이 발생해야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말한다. 시간의 순서가 뒤바뀐 듯한 구조다.

훔볼트와 리터는 사제 지간처럼 지냈고 훔볼트의 영향을 받아 리터의 저술에도 훔볼트의 사상이 일부 포함되었다. 두 학자는 공통점이 많았는데 우선 이론과 법칙을 검증하는 데에 귀납적 추론 방법을 활용했고, 세계를 지역적 관점으로(전체가 아닌 부분을 중심으로)보고 통일성을 발견하고자 했다. 그렇지만 그들은 자명한 차이점이 존재해 학문적인 방향은 결국 달랐다고 생각된다. 훔볼트는 답사와 측량을 중요시 여겨 자연계에 초점을 둔 연구를 진행했고, 리터는 인문적 세계와 인류 역사의 중요성을 더 고평가했다. 런던 로열 할로웨이 지리학과 명예교수인 Tim Unwin에 따르면 ‘훔볼트는 근대 계통지리학의 아버지로 기술되고, 리터는 지역지리

학의 아버지라고 불린다'고 한다.<sup>12</sup>

## 2. 다윈, 라마르크 진화론

19세기 후반 지성계에서 가장 개념적 토대였던 이론은 진화론이었다. 근대 지리학 역시 마찬가지로 진화론에 영향을 받아 사상적 흐름에 편향하게 되었다. 찰스 다윈(Charles Robert Darwin)은 오랜 세월을 걸쳐 진화론을 만들어냈다. 우리가 익히 들어 알고 있는 『종의 기원(The Origin of Species)』은 그의 업적 중 가장 중요한 저술이다. 다윈의 핵심 이론은 정상에서 벗어난 특정 변이를 지닌 생물은 자신이 속한 환경에 적응하는 데 다른 개체들보다 유리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적자생존 혹은 자연선택). 이런 돌연변이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유전되고 결국 새로운 종이 탄생한다는 진화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다윈의 사상은 인간의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영역까지 뻗어 나가 사회이론 속으로 수입되었다.

진화와 관련된 이론 중 다윈과 경쟁했던 인물은 장 바티스트 라마르크(Jean Baptiste Lamarck)였다. 라마르크와 “신라마르크주의자”들은 생존에 유리한 형질을 얻는 것은 종의 생애 중에도 획득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다윈의 돌연변이처럼 오랜 시간, 유전을 거친 결과라기보다 생애 중에 획득한 특성이 다음 세대에 계승되어 진화가 훨씬 급속하게 진행된다는 것이다. 이런 사상은 사회에서 매혹적인 내용이었고 그 영향력은 지정학(geopolitics)과 지형학에서 가장 뚜렷하게 찾아볼 수 있었다.

## 3. 지정학과 지형학

지리학은 분명 정치와 전쟁에 핵심이다. 스트라본 역시 세계에 대한 지식은 세계를 다스리고 통제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시 말하자면 세계를 안다는 것은 멀리 떨어진 나라에 어떤 자원이 있는지, 어떤 인종이 살고 있는지, 그곳을 정복하기 위한 장벽에는 무엇이 있는지 등의 개념적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관계가 지정학이라는 이름하에 포괄된 것은 19세기 말이었는데, 지정학을 이론화하는데 핵심적으로 기여했던 두 인물은 영국의 지리학자 해퍼드 매킨더(Halford Mackinder, 1861~1947)와 독일의 지리학자 프리드리히 라첼(Friedrich Ratzel, 1844~1904)이었다.

매킨더의 지리학은 이전의 학자들과는 달랐다. 탐험을 중요시했고 제국주의적 사상이 포함되어 있었다. 매킨더의 주요 관심사는 세계 전체의 지정학적 구조에 있어서 그 하위 요소인 각 국가들과 지역들은 어떠한 상호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려는 것에 있었다. 궁극적으로는 그가 살고있던 대영제국이 최고의 지위를

---

<sup>12)</sup> Unwin P.T.H, 『The place of Geography』, Longman Scientific&Technical, Harlow, 1992.

유지하기를 바란 것이다. 또한 그의 주장에 따르면 '탐험의 시기 덕분에 세계의 대부분은 이미 밝혀졌고 유럽 열강은 큰 노력을 들이지 않고 아프리카와 아시아 대부분을 식민지화했다'고 한다.<sup>13</sup> 사실상 세계는 이제 닫혔고 유럽 열강은 분리되었으므로, 향후 유럽 열강들은 자국의 경계와 유럽 내의 상대 국가를 향해 관심을 돌릴 것이라고 봤다.

이어서 매킨더는 새로운 세계에서는 해양 세력의 중요성이 쇠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육지 제국(아시아)의 빠른 철도로 자원을 실어 나름으로써 효율적인 이동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세계의 미래는 아시아(유라시아 대륙을 가리킴)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고 봤다. 그리고 매킨더는 이를 역사의 추축(pivot)이라 지칭하고 독일과 러시아의 동맹을 영국이 막아야 할 것임을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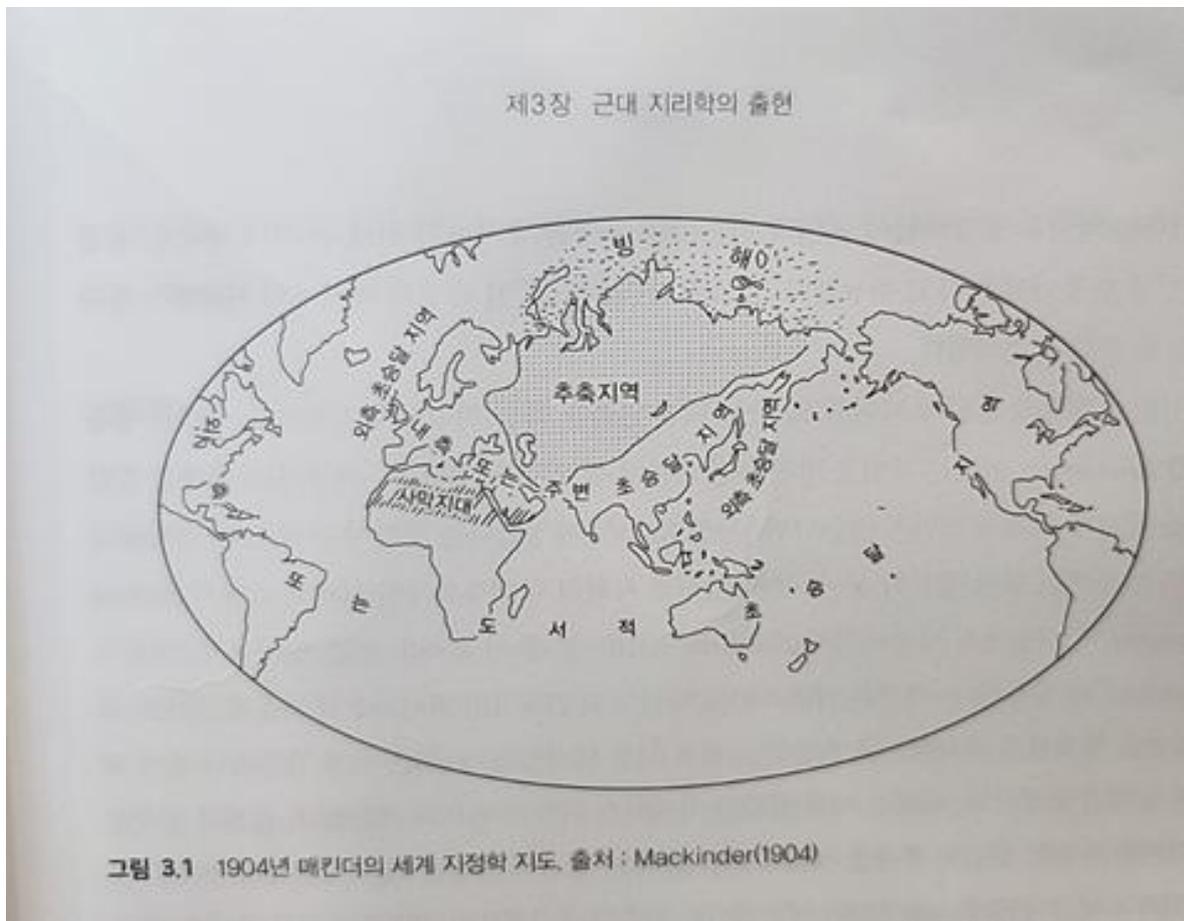


그림4) 1904년 매킨더의 세계 지정학 지도.<sup>14</sup>

이론 지정학에 기여한 다른 핵심 인물은 독일 지리학자인 라첼이다. 그는 생활공간(lebensraum)이라는 개념을 발전시킨 학자로 잘 알려져있다. 이 개념 상으로, 국

<sup>13</sup>) Mackinder, H. 『The geographical pivot of history』, Geographical Journal 23, 1904, 421~442p.

<sup>14</sup>) Mackinder, H. 『The geographical pivot of history』, Geographical Journal 23, 1904, 421~442p.

가는 강한 이웃 국가에 의해 제약받지 않는다면 자연적으로 팽창한다는 생각이 담겨있다. 라첼은 자연과학을 배웠고 다윈주의의 지지자였기 때문에 생물학적 개념을 지리에 담았던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생존을 위한 투쟁을 국가 간의 영토를 갖기 위한 투쟁으로 본 것이다. 따라서 국가의 공간을 차지하기 위한 투쟁은 당연하고 자연에서 비롯됐다고 봤다. 또한 국가는 주변 공간으로 뻗어 나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있다고 보았고, 특히 독일과 같은 강대하지만 공간이 제약되어 있는 국가는 더욱 그러하다고 생각했다. 반대로 오스만같이 약한 국가는 수축될 수밖에 없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이런 사상이 제 2차 세계대전의 서곡이 된 것임에 틀림 없다. 이런 다윈주의적 사고는 지형학의 발전 과정에서 꽤 투명하게 보인다. 그렇다면 지형학에서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지 보겠다.

미국 지리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윌리엄 모리스 데이비스(William Morris Davis)는 근대 자연지리학 발전에 있어 핵심 인물이다. 그는 지형이 순환적인 과정을 거쳐 (유년기 -> 장년기 -> 노년기) 발전한다는 사고를 가지고 있었다. 이는 지극히 다윈적인 사고인데, 자연선택과 돌연변이 등의 핵심 개념에 의존하지는 않지만 미리 정해진 진화의 단계를 거쳐 지형이 발전했다는 것이 매우 흡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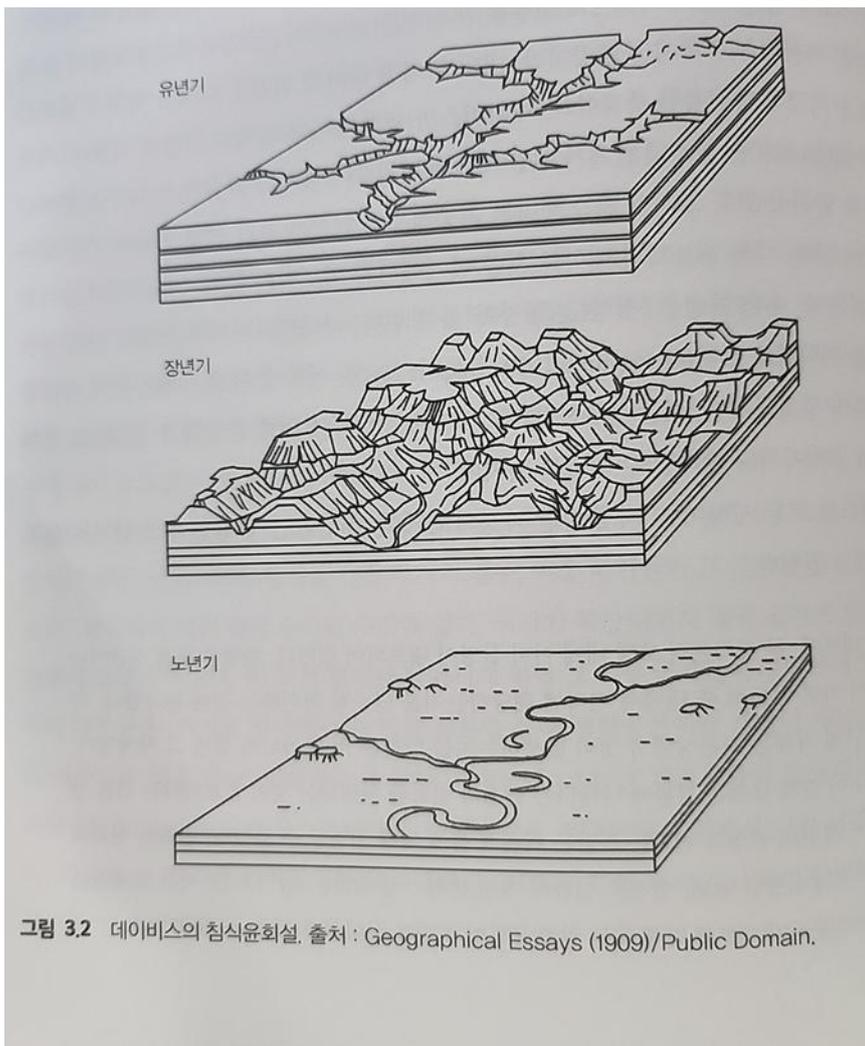


그림 3.2 데이비스의 침식윤회설. 출처 : Geographical Essays (1909)/Public Domain.

데이비스는 침식유희설에 더해 진화론적인 사상을 가지고 자연의 통제력과 인간의 대응에 관해 관심이 있었다. 유기체적 요소(인간)와 비유기체적 요소(자연) 간의 인과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지리학이라고 주장하기까지 했다. 이런 데이비스의 지형학은 1960년대에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취급받았지만 지형학을 넘어선 분야에서는 영향을 끼쳤다. 특히 앞서 언급한 환경결정론과 비슷한 맥락의 개념이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언급되곤 한다.

#### 4. 환경결정론

환경결정론은 초기지리학 파트에서 간단하게 설명했었지만, 인간과 문화의 세계가 자연환경에 의한 결과이며 자연환경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리킨다. 이는 20세기 중반 제국주의, 인종차별적인 사상에 있어 핵심이 되는 내용이 되었는데, 스코틀랜드 탐험가 리빙스턴에 따르면 '열대 지역의 단조로운 기후는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풍부한 먹거리를 쉽게 구할 수 있게 해준다. 따라서 사람들은 게으르고 나태해질 수밖에 없어, 어딘가에 고용되어 노동을 할 의욕이 없다.'<sup>16</sup>고 하며 과거 노예제에 대한 책임이 기후에(그리고 노예가 된 원주민들 자신들이 나타했기 때문에) 있다고 주장한다.

이 외에도 환경결정론의 핵심 인물은 미국의 지리학자인 엘렌 샘플(Ellen Semple)과 헌팅턴,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의 지리학자인 그리피스 테일러(Griffith Taylor) 등이 있다. 이들도 사상적 기저에는 다윈이 있었는데 각각이 주장하는 내용을 살펴보겠다.

샘플은 라첼을 존경해 인류지리학 속에 담긴 사상을 북아메리카의 정서에 맞게 번역하고자 했다. 그녀의 저서 『라첼의 인류지리학을 토대로 본 지리적 환경의 영향』에서는 세계를 핵심적인 환경 유형으로 나누고(산지, 강안, 해안 등), 각 환경 유형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세밀히 기술했다. 그는 자연환경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을 크게 네 가지로 정리했다.

- 1) 환경이 육체에 직접 미치는 영향: 기후, 격해도, 해발고도 등의 자연적 요인은 키, 피부색, 머리카락의 색깔과 같은 인간의 특징에 영향을 미친다.
- 2) 환경이 정신에 미치는 영향: 환경은 종교, 문학, 사상 등 인간 생활의 문화적 측면에 영향을 끼친다.(에스키모인들이 생각하는 지옥은 어둡고, 폭풍이 몰아

---

<sup>15</sup>) Davis, W. M, 『An inductive study of the Earth: Genealogies of a Geographical Metaphor』,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hicago, 2021.

<sup>16</sup>) Livingstone, D., 『Climate's moral economy: science, race and place in post-Darwinian British and American geography, in Geography and Empire(eds A. Godlewska and N. Smith)』, Blackwell, Oxford, 1994, 132-154p.

치며, 추운데 반해 유태인들이 생각하는 지옥은 불구덩이다.)<sup>17)</sup>

- 3) 환경이 경제적, 사회적 발전에 미치는 영향: 켈플은 인간 생활에 필수적인 기초 자원의 총량에 따라 사회의 발전 수준이 다르다는 것을 도표로 보여줬다.
- 4) 환경이 인간 이주에 미치는 영향: 자연환경은 인간의 이동을 제약하는 장벽과 인간의 이동을 가능케 하는 통로를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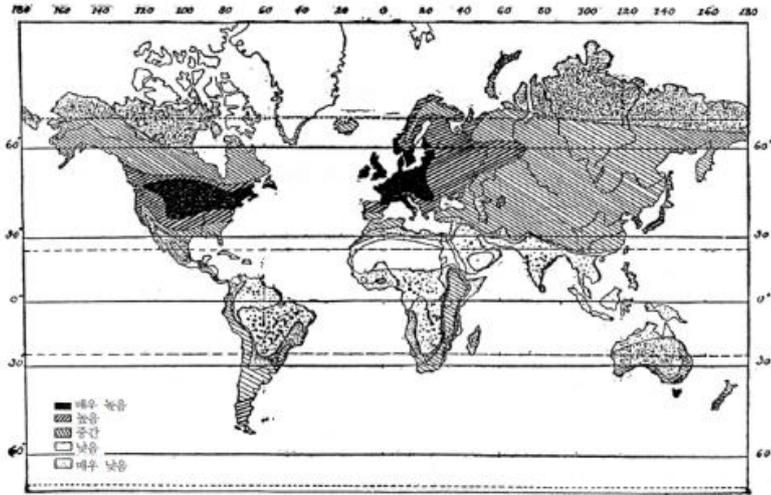
켈플은 고대 사상가들이 주장했던 것처럼 단순히 기후에 따라 인종의 특성이 다르다는 주장을 상회한다. 그에 따르면 '미국 남북전쟁 당시 왜 사람들이 노예제에 대해 상이한 태도를 가졌는지 설명할 수 있다'고 한다. '뉴잉글랜드가 노예제에 반대한 이유는 뉴잉글랜드 지역이 토양과 바위가 흩어져있어 노예를 쓰기 적합하지 않았고, 남부가 찬성한 이유는 버지니아 해안 지대의 부유한 플랜테이션과 미시시피 저지대의 비옥한 토지가 노예를 쓰기 적합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sup>18)</sup> 그 외에 그리스와 같이 작고 고립된 곳이 문명이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 러시아가 발전하지 못한 이유, 산악지대 환경이 정신적, 예술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게 막고있는 이유 등 환경이 인간에 영향을 주는 것을 강조하여 유전을 토대로 한 인종 이론을 넘고 싶어 했다.

이는 헌팅턴이 저술한 『인종의 특성(The Character of Races)』에도 잘 나타나있었다. 그는 유명한 학자들의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기후 에너지 지도 위에 '천재성', "건강", "문명" 등의 특성을 분포로 나타냈다. 마찬가지로 헌팅턴 역시 열대에서는 진화가 정체되어 미개한 상태로 남아있다고 주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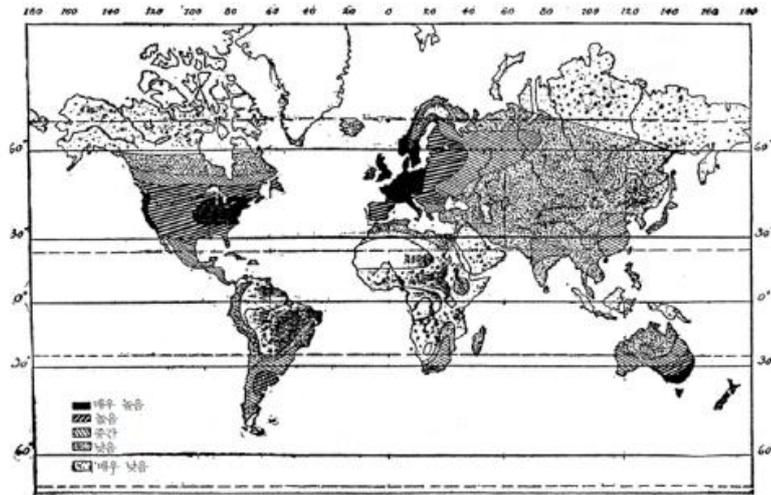
---

<sup>17)</sup> Semple, E. C., 『Influences of Geographic Environment on the Basis of Ratzel's System of Anthro-Geography』, Holt, NewYork, 1911, 40~41p.

<sup>18)</sup> Semple, E. C., 『Influences of Geographic Environment on the Basis of Ratzel's System of Anthro-Geography』, Holt, NewYork, 1911, 11p.



〈그림 43〉 기후에 기초한 인간의 건강과 에너지 분포



〈그림 44〉 문명의 분포

그림6) 헌팅턴의 기후 에너지 지도.<sup>19)</sup>

그러한 사고는 오스트레일리아의 지리학자였던 테일러에게도 반복되어 나타난다. 그는 인간 생활이 기온과 습도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하기 위해 “클라이모그래프”라 불리는 지도를 제작했다. 또한 테일러는 그의 저작 『환경과 인종: 진화, 이주, 정주, 인종적 지위에 관한 연구』(1927)에서 이른바 “구역과 지층” 이론을 발전시켰다. 구역과 지층 이론은 적당한 시간이 지났을 때, 상이한 계층의 집단은 구역별로 배열되고 가장 진화된 집단이 중심부에 남는 반면, 진화가 뒤쳐진 집단은 주변부로 밀려난다는 이론이다. 덧붙여서 맨 가장자리는 아프리카이며, 이곳에

<sup>19)</sup> Huntington, E., 1924, 「Civilization and Climate(3rdeds.)」, 한국지역지리학회 역, 2013

서 가장 “미개한” 사람들을 찾을 수 있다고 봤다.

## 5. 무정부주의적 대안

여태까지 살펴 본 지리학 이론은 엘리트 집단 혹은 집권층을 위해 복무해왔다. 제국주의적 지배, 전쟁 등의 식민화 정책은 지리학과 함께 발전해 나갔다. 다시 한번 스트라본이 주장한 지리학이 국가 통치의 중요한 도구라는 내용이 상기된다. 그러나 19세기 후반~ 20세기 초반의 유럽은 제국의 팽창과 더불어 엄청난 갈등과 격변이 나타난 시기다. 노동자들은 집단으로 결속해 고용주들과 국가에 도전했다. 혁명운동으로 인해 사회적 변혁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다. 여기서 등장한 무정부주의(anarchism) 역시 이런 운동들 중 하나였다. 무정부주의는 지리학과 지리학자들을 핵심으로 했던 주요 정치 운동이었는데 두 사상가 엘리제 르클뤼(Elisee Reclus, 1830~1905)와 표트르 크로포트킨(Peter Kropotkin, 1842~1921)의 저작에 잘 드러나 있다.

무정부주의는 여러 형태를 띠지만 대체로 교회, 국가, 직장 등 제도화된 권위에 반대하는 사상이다. 무정부주의자들은 권력이 인간의 협동과 창의성을 가로 막는 방해물이라고 생각한다. 르클뤼는 어떻게 하면 세계 자원이 인간 모두의 이익을 위해 재분배될 수 있는지 그리고 국경을 초월한 연대가 어떻게 제국주의 국가의 권력을 물리칠 수 있는지를 고민했다. 이브 라코스트(Yves Lacoste)에 따르면 ‘르클뤼에게 있어 지리학은 국가기구와 연결된 권력의 도구이자 이데올로기적 재현이며 정치적 선전물이었기 때문에, 르클뤼는 이 도구를 지배계급과 싸우는 데 사용하고자 했다’고 한다.<sup>20</sup> 르클뤼 사상의 핵심은 인간과 자연의 관계성에 있었다. 그에 따르면 ‘자연은 필연적이지만 인간은 스스로에 의해 무한히 적응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자연에 관한 피할 수 없는 사실, 인위적 세계에 속하는 사실, 생략하거나 완전히 무시할 수 있는 사실을 구분한 후, 토양, 기후 등 인간의 역사에 일정한 영향을 끼치는 원초적 사실을 확인했는데 임금, 소유, 상업, 그리고 국가에 대한 한계 등은 이차적 사실들이라고 주장했다.<sup>21</sup>

크로포트킨은 자연지리학을 공부한 지리학자이다. 그는 단순히 지리를 기술하려 하기보다 지리를 변혁하고자 했는데, 소규모 공동체적 생활에 기반을 둔 지리를 신봉했다. 나아가 크로포트킨은 자본주의 하에서 대규모 경제조직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모든 협동적 형태의 사회생활을 파괴함으로써 소외를 야기한다고 주장한다. 따라

---

<sup>20</sup>) Reclus, E., Clark, J. P., and Martin, C., 『Anarchy, Geography, Modernity: The Radical Social Thought of Elisee Reclus』, Lexington Books, Lanham, MD, 2004, 61P.

<sup>21</sup>) Reclus, E., Clark, J. P., and Martin, C., 『Anarchy, Geography, Modernity: The Radical Social Thought of Elisee Reclus』, Lexington Books, Lanham, MD, 2004, 24P.

서 그의 이론을 정당화할 수 있는 과학적 사례를 제시하기 위해 상호부조(mutual aid) 이론을 발전시켰다. 상호부조는 다윈에게서 영감을 받았지만 전개 내용이 다르다. 그의 연구를 다른 방식으로 새롭게 해석했고, 구성원들끼리의 본질적 협동을 중요시했다. 크로포트킨에 따르면 '말뚝이 늑대의 공격을 받을 때 대항하기 위해 원형을 취한다. 이는 동물의 진화 과정에서 천천히 발전시켜온 본능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 본능으로 인하여, 인간이나 동물은 상호부조와 협동의 실천으로부터 힘을 이끌어내고 사회적 생활에서 기쁨을 얻는 방법을 터득했다.'고 한다.<sup>22</sup> 또한 아직 발전이 더딘 원시부족 사이에서도 높은 수준의 집단 생활이 나타난다는 점을 예로 지적하면서 계층적 위계를 문제삼기도 했다.

#### IV. 결론

고전부터 시작해서 근대까지의 지리학을 살펴봤다. 내용이 이해가 가지않아 외부 사이트를 참고하기도 하고 요약과 선행연구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아무리 오래돼 봐야 20세기의 지리학을 배우고 있던 필자에게는 지리학의 주축을 맡고 있던 과거 학자들이 지리학을 발전시킬 때 했던 핵심 고민과 중요하게 여겼던 사상을 한번에 배울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다. 그리고 초기 지리학 마지막 부분에 기술했던 것처럼 지리학은 주관적인 학문인 것 같다는 생각이 다시한번 든다. 환경결정론과 비슷한 맥락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주변 환경에 의해 인간의 가치관이 정해지고 그에 맞게 지리학이 발전해 나간 것 같다. 이번 기회에는 학자들의 주요 사상과 핵심 내용만 확인해봤지만 여유가 날 때 기록된 학자들의 이론을 조금 더 세밀하게 분석해보고 숨은 뜻이 없는지 확인해보고 싶다고 생각한다.

---

<sup>22</sup>) Kropotkin, P. A., 『Mutual Aid: A Factor of Evolution』, Allen Lane, London, 1972, 21p.